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전국 유일 대형 거점연구소 선정

전주대는 교내 한국고전학연구소가 교육부 산하 한국고전번역원이 주관하는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에 대형 거점연구소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그동안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권역에서 12개 거점연구소 형태로 협동번역사업을 진행해왔다. 대형 거점연구소 선정은 전국에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유일하다.

이번 사업은 204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새한국고전문학연구원과 함께 매년 6억4000만 원의 사업비 및 출판비를 지원받아 호남권 문집 등을 번역·발간할 예정이다.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은 미번역 고전 자료를 조기에 번역해 고전 번역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에 시작됐다.

김종표 기자

“한국학 세계화 선두주자로서 위상 더욱 강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전국유일 ‘대형거점연구소’ 선정

“국내의 학술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인문학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최근 전주대 한국 고전학 연구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형 거점 연구소로 최종 선정되면서 변주승 소장은 남다른 욕심으로 연구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한국 고전 번역원이 주관하는 권역별 거점 연구소 협동 번역 사업은 그동안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권역별 12개(준대형 3개, 중형 3개, 소형 6개) 거점 연구소 형태로 진행해 왔다.

전주대 한국 고전학 연구소는 지난 2013년에 준대형 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지만, 이번 거점 대형 연구소 선정은 전국 최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주대 한국 고전학 연구소는 오는 2040년도까지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연구소는 한국 고전 문화 연구원과 컨소시엄을 이뤄 연구를 진행하고, 매년 6억 4천만원의 사업비, 출판비를 지원받아 호남권 문집 등을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권역별 거점 연구소 협동 번역 사업은 지역사와 함께 한국학의 보고(寶庫)로, 전통 문화 유산의 현대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운영된 연구소는 그동안 산적한 미번역 고전자료를 조기 번역함으로써 고전 번역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의 번역 인재를 양성해왔다.

또한 근현대 유학 연구단, 율곡 정본화 사업단, 추안급국안 원문입력 및 DB기반 구축 사업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2009년에 관찬지리지 국역 ‘여지도서’ 50권, 2013년도 심문기록 국역 ‘추안급국



전주대 한국 고전학 연구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형 거점 연구소로 최종 선정됐다.

전주대 제공

안’ 90권을 출판해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변주승 소장은 “이번 대형 연구소 선정으로 책임감이 더 커졌고 욕심도 생겼다”며

“고전 번역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통 지성과 문화의 창조적 계승, 한국학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4일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형거점연구소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힌 가운데 연구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채 기자(haram7895@)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형거점연구소 국내유일 선정

매년 6억 4000만원 사업·출판비 지원, 전통문화 유산 현대적 가치 창출 기여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4일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형거점연구소로 최종 선정됐다

고 밝혔다.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은 교육부 산하 한국고전번역원이 주관하며, 그동안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권역별 12개(준대형 3개, 중형 3개, 소형 6개)거점연구소 형태로 진행해 왔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

2013년에는 준대형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2040년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과 컨소시엄을 이뤄 연구를 진행한다.

매년 6억 4000만원의 사업비, 출판비를 지원받아 호남권 문집 등을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은 지역사 더 나아가 한국학의 보고(寶庫)로 전통문화 유산의 현대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된다.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은 산적한 미번역 고전자료를 조기 번역함으로써 고전번역의 획기적 성과 증대와 아울러 지역의 번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시작됐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그동안 근현대유학연구단, 율곡정보문화사업단, 추안급국안 원문입력 및 DB기반 구축 사업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 2009년에 관찬지리지 국역 '여지도서' 50권, 2013년도 심문기록 국역 '추안급국안' 90권을 출판했다. 변주승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장은 "국내외 학술기관과의 교류 확대, 지자체와 연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고전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학적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며 "고전번역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통지성과 문화의 창조적 계승, 한국학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bkko@)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형거점연구소 국내유일 선정 쾌거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4일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형거점연구소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은 교육부 산하 한국고전번역원이 주관한다.

그동안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4개 권역별 12개(준대형 3개, 중형 3개, 소형 6개)거점연구소 형태로 진행해 왔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3년에는 준대형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2040년도까지 장기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사)

한국고전문학연구원과 컨소시엄을 이뤄 연구를 진행한다.

매년 6억 4천만원의 사업비, 출판비를 지원받아 호남권 문집 등을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은 지역사 더 나아가 한국학의 보고(寶庫)로, 전통문화 유산의 현대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된다.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은 산적한 미번역 고전자료를 조기번역함으로써 고전번역의 획기적 성과증대와 아울러 지역의 번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시작됐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그동안 근현대유학연구단, 율곡정분화

사업단, 추안급국안 원문입력 및 DB기반 구축 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09년에 관찬지리지 국역 '여지도서' 50권, 2013년도 심문기록 국역 '추안급국안' 90권을 출판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변주승 교수는 “국내외 학술기관과의 교류 확대, 지자체와 연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고전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학적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며 “고전번역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전통지성과 문화의 창조적 계승, 한국학 세계화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